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잘못을 찾기는 쉬우나
자신의 잘못을 알기는 어렵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6월 8일) 2022년 7월 6일 수요일



독도는 우리 땅! 진각종은 8월 29일 울릉도 한마음회관에서 독도 아리랑 콘서트를 개최했다. 3년만에 개최한 회당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실내 공연장으로 장소가 변경돼 열렸다. 사진은 진각종 청년자원봉사자 30여 명이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고 있는 모습. **〈현장기사 5면〉** **울릉도=김주일 기자**

해방 후 격변기서 불교 변화하려 했다

통합종단 60년, 과거서 현재를 보다

① 성립 배경
② 출범 과정
③ 출범 이후
④ 주요 인물
⑤ 평가와 과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962년 통합종단의 출범은 불교 최대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공식적인 성립과 발전 기틀을 세운 토대로 평가된다. 동시에 현재 한국불교의 한 축인 한국불교태고종 출범의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하다. 한국불교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이 역사적 사건은 당시 정치 · 사회, 불교계 내부적으로 수많은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결과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통합종단 출범이라는 역사성은 현재의 한국불교에 어떤 변화로 이어지고 있을까.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 했다. 올해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맞아 그 배경과 흐름, 평가와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통합종단이 출범한 1962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한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났고, 불과 1년이 지난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군부쿠데타)가 발발했다. 특히 군사정변은 통합종단 성립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불교계는 비구승과 대처승으로 양분돼 수년간 전국 주요사찰들을 중심으로 쟁탈전이 반복되는 등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비구 · 대처 갈등은 1945년 해방 이후 불교계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불교계 주도세력은 대처승 측이었다. 그러나 일본불교 잔재를 걷어내기 위한 비구승 측의 정화운동 역시 거세게 일었고, 정치 · 사회적으로도 예측불가능한 변화흐름이 지속됐다. 결과적으로 비구승 측은 확고한 불교정화 원력과 정치적 지지기반을 활용해 1955년 이승만 정권 당시 불교조계종을 출범한 데 이어, 1962년 박정희 정권에서 통합종단 출범이라는 결실을 맺는다.

비구승 측은 1955년 8월 조계사에서 개최한 전국승려대회를 계기로 불교조계종을 창립했는데, 이는 현 조계종의 기초가 된 종단으로 불교정화운동의 분수령에 다름없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정화 유시 등을 통해 비구승 쪽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이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

승려대회 이후 조계종단을 구성하고 불교정화의 완성을 향해 가던 비구승 측의 흐름은 4.19혁명을 계기로 제동이 걸린다. 비구승 측에 힘을 실어주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대처승 측의 반격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대처승 측은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 유시가 불법이며 이에 기인한 불교정화운동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처승 측은 조계종단을 '관제불교단체'로 규정하고 조계사 등 전국 주요사찰들을 되찾기 위한 소송과 점거에 착수했다.

특히 대처승 측은 승려대회 전날 문교부 중재로 열린 '사찰정화대책위원회' 결의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는데, 이 소송은 정화의 완전한 종결을 바라는 비구승 측과 이승만 정권 당시 빼앗긴 사찰은 물론, 불교계 주도권 탈환을 염원하던 대처승 측의 향방을 가름할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4.19혁명 이후 조계종은 불과 1년만에 5.16군사정변으로 또 한 번 폭풍에 휘말렸다. 군사정변은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을 무너뜨리고 갑작스런 정권교체로 이어졌고, 당시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정부와 국회, 대법원을 모두 무력화해 박정희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행정과 입법, 사법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조계종은 긴급히 대응책을 모색하고 불교정화와 5.16 정신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쿠데타 주역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모색에 나섰지만 군부는 정화로 인한 일련의 상황들을 '분규'로 규정했다.

박정희를 의장으로 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종교단체심의회를 통한 종교단체 등록제 시행을 공포한 데 이어, 불교재건위원회 구성을 통해 양측의 통합을 요구했다.

정부의 방침은 확고했다. 선(禪) 중심의 비구승과 교(敎) 중심의 대처승으로 통합하는 방침을 기본으로, 비구 · 대처 동수의 불교재건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종헌을 만들고 중앙종회를 구성해 새로운 종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골자는 △단일종단 유지 △양측 모두 한국불교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한국불교 대표종단은 쌍방 대표로 구성된 신종회에서 제정한 새로운 종헌으로 성립한다 등으로, 사실상 1962년 출범한 통합종단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담겼다.

대처승 측은 이를 수용했지만 비구승 측인 조계종은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문교부는 재차 수정안을 내놨다. 결국 불교재건위원회 조례안은 1955년 이후 300여 건에 달하는 비구 · 대처간 소송을 강제취하하는 방안을 전제로 수차례 협의 끝에 양측의 동의를 끌어낸다.

비구 · 대처승 간 지속된 갈등
사회 변화와 맞물려 혼란반복
불교정화 양면에 대한 평가도
4.19혁명 · 5.16정변 등 전환점
정부 주도에 의한 변화도 주목

20돌 맞은 템플스테이 홍보 · 공익사업 확장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템플스테이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서울시립공공병원과 협약을 맺는 등 홍보와 사회공익사업 확대에 나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템플스테이 20주년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템플스테이 20주년 홍보대사로는 템플스테이 및 불교계와 꾸준한 협력관계를 맺어온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前 차관과 김갑수 템플스테이 전문위원(前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을 비롯해 대표 불자 정치인 주호영 제21대 국회의원, 불자가수 김흥국, 조항조, 배우 정찬,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 등 16명이 위촉됐다.

위촉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직접 수여했으며,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이 위촉된 홍보대사들에게 일일이 템플스테이 뱃지를 달아줬다.

위촉된 템플스테이 20주년 홍보대사들은 다양한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템플스테이 20주년 홍보대사 소임을 수락해주셔 감사하다. 이제 템플스테이를 전 세계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게 하려고 한다"며 "위촉된 홍보대사들께서는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사업단은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9월에는 통도사에서 외교사절, 외신기자를 초청해 체험 AGAIN 2002 행사를 열고 11월에는 2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위촉된 홍보대사들께서는 템플스테이의 위상이 한 층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치 · 연예계 인사 16명
문화사업단 홍보대사 위촉
서남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의료인 업무환경 개선 노력

연예인 홍보대사인 김흥국 씨와 정찬 씨도 템플스테이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뜻을 밝혔다. 김흥국 씨는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에서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게 없었는데 스님들이 사찰의 문을 열어줘 템플스테이가 시작됐다.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동이었고, 그런 템플스테이 20주년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정찬 씨는 "한국 대표 관광콘텐츠인 템플스테이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에 감개가 무량하다"며 "스케줄이 맞는다면 자녀들과 템플스테이를 직접 체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 28일에는 문화사업단과 서울 서남병원(원장 장성희)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등 불교문화자산을 활용해 공공의료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문화사업단은 서남병원 종사자 대상으로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사찰음식 체험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서남병원은 서울 시내 사찰 공공의료 지원과 템플스테이 계간지에 건강칼럼 게재 등 의학자문을 약속했다.

서남병원 고종훈 진료부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의료진이 지쳐 있을 때 문화사업단에서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를 제공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의료 소외계층의 공공의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서울시 의료복지 활성화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서남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지에서 활동하는 의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할 수 있는 사찰음식 체험 및 템플스테이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